

# 케미컬탱커 2007년부터 선박 구조요건 강화

## 노후선박의 해체촉진으로 시황상승 예상

MARPOL조약(해양오염방지조약) 부속서 II와 유해액체물질의 분류를 큰폭으로 재검토한 IBC 코드(위험화학품의 산적운송을 위한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국제규칙)가 오는 2007년 1월1일 발효된다.

새로운 IBC코드는 현행 IBC코드에 게재되는 전체 565종의 물질 중 273종의 물질에 대해 선박의 구조요건(화물탱크 위치, 손상시 복원성, 방화구조 등)을 강화했다.

케미컬제품을 수송하는 외항선의 경우 지난 1980년대에 건조한 노후선이 30%에 달함에 따라 내년 규제강화로 노후 케미컬탱커의 해체가 촉진되어 시황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케미컬 탱커의 선형요건(화물 탱크위치, 손상시 복원성)에서는 외판으로부터의 탱크위치(거리) 등에 의해 규제가 I, II, III 등으로 분류된다. I, II의 경우 이중선체구조가 요구된다. 새로운 IBC코드가 적용될 경우 규제 강화에 의해 III(단일선체)에서 II로 격상되는 케이스가 많이 발생한다.

일본은 내항선에 대해 2007년 1월부터 전체 현존선의 규제 강화와 안정 수송등을 고려하여 경과조치를 두지만, 외항선에 대해서는 조약대로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케미컬탱커 시황은 미국 남부의 제유소 등이 작년 9

월에 발생한 허리케인 피해로 케미컬제품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등의 생산이 침체되어 제품을 수입하게 됨에 따라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다.

외선에 따르면, 유럽발 미국향 운임은 2만-4만 DWT급 선형의 경우 톤당 65달러 수준으로 전년 동기대비 2배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구나 미국 제유소 등이 허리케인 피해로 입은 시설손상을 완전 복구하기까지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케미컬탱커 시황의 강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내년부터는 선체규제 강화 등으로 단일선체 선박의 수요가 줄고, 이에 따라 이들 선박의 해체가 촉진되면 시황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케미컬탱커 외에 30만DWT급 대형탱커(VLCC)의 경우도 선체구조 규제에 노후선박의 해체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유조선시황도 덩달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